

북구 'HOPE STREET' 사업 추진 본격화

최근 최종보고회 가져...핵심 키워드 '꿈·희망·청소년' 삼각·일곡동에 공원 스팟존·거리 포토존 등 연말 준공

광주 북구가 지역 명소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한 'HOPE STREET(희망의 거리)' 사업이 본격화된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7일 남도향 토음식박물관 3층 세미나실에서 'HOPE STREET 조성 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보고회에선 'HOPE STREET' 조성 사업의 추진 전략 및 디자인 계획이 공개됐다.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꿈(Dream)', '희망(Hope)', '청소년(You)'이다. 북구는 이 키워드들을 연결해 'Dream your Hope'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꿈을 키우고 희망을 응원하는 공간 조성 ▲밝고 안전하게 누구나 걷고 싶은 길 조성 등 3가지 전략 아래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사업 대상지인 삼각·일곡동에 17개 학교가 밀집해 있고, 인구의 20% 이상이 청소년인 만큼 '희망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인 데 따른 것이다.

HOPE STREET는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원 스팟존 3곳(가작어린이공원, 비둘기공원, 일곡제2근린공원) ▲거리 포토존 6곳(서일초, 일곡초, 일곡중, 국제고, 일곡·삼각마을) ▲청소년 거점센터 2곳(남도향토음식박물관, 일곡중)이 조성된다.

북구는 일본의 서포터즈 'HOPE-FULL PLACE'와 함께하는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HOPE-FULL PLACE는 'HOPE STREET' 지역을 희망이 모이는 장소로 만드는 것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담은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북구는 학교 자원이 풍부한 지역 특성을 살려 광주시교육청과도 협력사업을 할 계획이다.

일례로 일곡중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한 유휴 교실을 'HOPE CLASS'로 조성해 재학생 창의 체험활동과 주민과 학부모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일곡중학교는 올 상반기 교육부 공모인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다음 해부터 HOPE STREET와 학교 자원을 연계한 '희망이음터 조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희망의 거리 사업은 학창 시절 꿈과 희망 그리고 마을 자원이 연계된 특별한 명소를 조성하고자 추진했다"며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활동들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희망을 향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

HOPE STREET는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원 스팟존 3곳(가작어린이공원, 비둘기공원, 일곡제2근린공원) ▲거리 포토존 6곳(서일초, 일곡초, 일곡중, 국제고, 일곡·삼각마을) ▲청소년 거점센터 2곳(남도향토음식박물관, 일곡중)이 조성된다.

북구는 일본의 서포터즈 'HOPE-FULL PLACE'와 함께하는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HOPE-FULL PLACE는 'HOPE STREET' 지역을 희망이 모이는 장소로 만드는 것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담은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북구는 학교 자원이 풍부한 지역 특성을 살려 광주시교육청과도 협력사업을 할 계획이다.

일례로 일곡중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한 유휴 교실을 'HOPE CLASS'로 조성해 재학생 창의 체험활동과 주민과 학부모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일곡중학교는 올 상반기 교육부 공모인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다음 해부터 HOPE STREET와 학교 자원을 연계한 '희망이음터 조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희망의 거리 사업은 학창 시절 꿈과 희망 그리고 마을 자원이 연계된 특별한 명소를 조성하고자 추진했다"며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활동들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희망을 향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

기초지자체 첫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 정부 기준 초과 복지급여 미수혜자에 생계급여 지원...오늘부터 접수

광주 서구는 30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완료된 지원기준을 적용한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구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초과해 복지급여를 못 받는 주민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등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모두 근로 능력 없음 ▲서구는 이 사업에 약 37가구가 해당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6천8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생계급여는 매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25% 이내는 91만 6천780원, 기준 중위소득이 26-50% 이내는 45만8천300원으로 신청달로부터 1년간 매월 지급되며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등 관련 문의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복지 문턱을 낮춘 서구형 복지제도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착한 도시 서구'에 걸맞은 지역 특화형 복지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제5기 남구톡톡 SNS 기자단' 발대

광주 남구는 "최근 구청 7층 상향실에서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된 '제5기 남구 톡톡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남구는 구청 현장의 생동감과 동네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남구 톡톡 SNS 기자단을 모집, 운영하고 있다. 남구는 기자단을 통해 구정에 대한 홍보 효과 극대화 및 2만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정보 소비자의 최신 경향을 적극 반영, 1인 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쇼츠 영상(60초로 제한된 영상) 제작을 통한 차별화 마케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주성학 기자



지난 28일 오전 광주 남구청 7층 상향실에서 관내 주민들로 이뤄진 '제5기 남구톡톡 SNS 기자단 발대식'이 개최됐다. 영상제작자 및 블로거, 구청 관계자 등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남구 제공>

광산구, '운상원 열사' 이름 딴 명예도로 지정

광주 광산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숨진 시민군 대변인 '운상원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정된 명예도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진>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전날 일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상원길을 걷다, 민주주의를 품다' 걷기 행사가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운상원 민주로'라는 명예도로명 부여를 기념하고 '오월 광주' 정신 계승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사)운상원 기념사업회, 5·18 단체, 천동마을 주민 등 200여명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새 로 지정된 '운상원민주로', '운상원길' 등 약 6km 구간을 따라 걸으며 열사의 발자취를 느꼈다. 명예도로는 지역사회 헌신도, 공익성 등을 고려해 법정 도로명에 추가로 사람, 기업 명칭 등을 딴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5·18 유공자 이름을 명예도로명으로 한 것은 '운상원길', '운상원민주로'가 전국 첫 사례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4월 천동마을에 '운상원기념관(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을 연 것을 계기로 지난 20일 운상원 열사의 고향인 일곡 천동마을 내 천동길 320를 '운상원길'로, 또 마을로 향하는 임곡로 일부 5.7km(일곡동 행정복지센터-진곡교차로) 구간을 '운상원민주로'로 고시했다. /이윤근 기자



동구 육성 뷰티 기업 4곳 '해외 진출' 첫발

'태국 코스모프로프 아세안 방콕 2024' 참여 약 120만달러 규모 업무협약 체결 등 성과

광주 동구는 "최근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사업 - 코스메디케어 산업 제조 기반 서비스 고도화 산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재 4개 기업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태국 코스모프로프 아세안 방콕 2024'에 참여, 해외시장 개척에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30일 밝혔다.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사업은 동구

지역 인프라를 중심으로 코스메디케어 산업의 서비스를 연계, 거점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업의 고도화 및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13억6천여 만원이 투입되며 동구와 광주테크노파크·전남대병원·조선대학교 산학협력

단이 협력해 추진 중이다.

이번 태국 행사에 참여한 기업은 ▲노아코스팩스(대표 이수빈) ▲쑤미나페이(대표 김대섭) ▲쑤뷰티뷰티(대표 황찬형) ▲코덕(대표 김승혁) 4개 업체로 기초 및 색조 화장품 제품을 선보였다. 이들은 태국업체와 약 120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값진 성과도 거뒀다. 또한 태국과 독일 등 14개국 8명이 참여한 '체험형 실증 평가'를 통해 각국의 사람들의 피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은정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다가치키움, 돌봄 플랫폼 서비스

내·함께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 |
|----------------|--|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 정부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 양육공백기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
|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
| 시간제서비스 |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월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자동연결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